광주 거리 쓰레기통 14년만에 부활

버스정류장·인도에 쓰레기 넘쳐

1억원 예산 들여 274곳에 재설치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광주시내 가로변 쓰레기통이 14년만에 다시 설치된다. 광주시는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가정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는 등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자 시내 곳곳의 쓰레기통을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철거한 바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18곳, 서구 53곳, 남구 37곳, 북구 82곳, 광산구 57곳 등 모두 274곳에 표준디자인으로 제작된 쓰레기통을 놓기로 했다. 새로 제작된 쓰레기통은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실시 15년째를 맞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된데다, 버스 정류장이나 인도 곳곳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범람하자 지난해부터 쓰레기통 재설치를 검토해왔다.

시는 쓰레기통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아무 곳에나 내던지는 일이 줄어들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미관상 좋지 않았던 가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쓰레기통은 설치 장소별 특징을 감안해 일반쓰레기, 담배꽁초, 재활용 등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제작비용은 디자인까지 포함해 개당 40만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일반쓰레기통만 설치한다.

이 쓰레기통은 각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참여자 등이 매일 관리할 예정이며, 시는 반응이 좋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쓰레기통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5년 2천~3천개에 이르던 가로변 쓰레기통을 500여 개만 남겨두고 모두 없앴는데 시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새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가로변 쓰레기통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시 설치됐다.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버스정류장에 세워진 표준디자인 쓰레기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심 아파트 '식수 전쟁'

광주 두암동 일대 수돗물서 불순물

생수 사재기·상가 휴업

광주 도심 한 복판에서 때아닌 '식수 구하기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열흘 가까이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생수를 사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대 주변 상가의 생수는 거의 동났다. 일부 상가는 잠시 문을 닫고, 주민들은 식사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H아파트 500세대 입주민과 주택가 주민 등이 지난 15일부터 각 가정에 불순물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돼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본부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노후 상수관 3㎞를 교체하고, 길이 15㎞의 수도관 내부를 세척했다. H아파트 물 탱크(용량 700t)도 청소했다. 하지만 혼탁한 수돗물 공급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시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는 지난 22일 H아파트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탁도 0.402mtu·색도 3도·수소 이온농도 6.7도·잔류염소 0.82도로 환경부 기준 먹는 물 수질에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시 상수도본부 측은 계속된 가뭄으로 식수원의 저수량이 낮아지면서 음용수에 포함된 인체 무해한 '망간'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등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H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날 시 상수도본부로부터 500㎖ 짜리 39상자, 1.8ℓ 짜리 81상자를 지원받아 한 세대당 2.3ℓ 씩 나눠줬다. 하지만 이 식수론 네 식구가 하루 마시기도 버겁다.

일부 미용실·식당 등은 개점휴업에 빠졌다. H미용실을 하는 이모(여·43)씨는 "이 물로 샤워를 하다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전해 듣고 미용실을 잠시 쉬기로 했다"며 "먹는 물로 괜찮다지만 혹시 몰라 생수를 사다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정수과정을 거쳐 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상가 등서 담배 6만갑 훔쳐

광주북부경찰은 23일 광주지역 담배 판매점을 돌며 담배 6만갑 이상을 훔친 노모(4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42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벌과금 금융기관으로

7월부터 검찰에선 안받아

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폐기물처리비 부당 수령 7명 적발

감독부실 공무원 5명 입건

완도해양경찰은 23일 섬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용역비를 가로챈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해당 현장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임모(35)씨 등 완도군 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께부터 완도군 보길면의 하수도 개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량 4천t 가량을 부풀려 용역비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이 애초 설계와 계약물량보다 훨씬 적게 나오자 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軍 하극상 동영상' 유포 20대 검거

쌍나팔

○…군 복무 시절 선·후임병이 서로 싸우는 장면(일명 '군대 하극상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군대에서 촬영한 하극상 동영상을 전역 후 인터넷에 유포한 조모(2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조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육군 모 사단 세면장에서 선임병인 A병장이 B상병과 싸우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촬영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

○…조씨는 당시 A병장이 "군기가 빠졌다"며 B상병을 세면장으로 불러내 질책하다 난투극으로 번지자 이를 몰래 촬영했는데, 군 복무 중인 B상병이 지난 4월 초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폐기물 책임 묻지마' 땅거래 특약은 무효"

광주지법, 토공에 배상 판결 … 파장 클 듯

한국토지공사의 '하자 토지 면책 특약'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효 판결을 내려 향후 폐기물 매장 등 결함이 있는 땅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과 유사 소송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김도근 판사는 23일 M사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토지공사는 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공의 '하자 토지 특약'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다"며 "M사의 과실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토공은 그동안 토지매각 당시 입찰공고문과 토지매매계약 입찰유의서에 '하자 토지 특약' 조항을 달아 매입자들과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같은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에도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M사는 2007년 5월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공 측과 '계약체결 후 땅밑에 지하구조물, 폐기물, 문화재 등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M사는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폐유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나오자 8천500여만원을 들여 반출공사를 한 뒤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병원·호텔 등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광주·전남 요양병원 급식소와 유명 호텔 음식점 39개소를 특별단속해 원산지를 속인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 소재 H병원 등 9곳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탕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위반 사례로는 캐나다, 폴란드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각 2건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